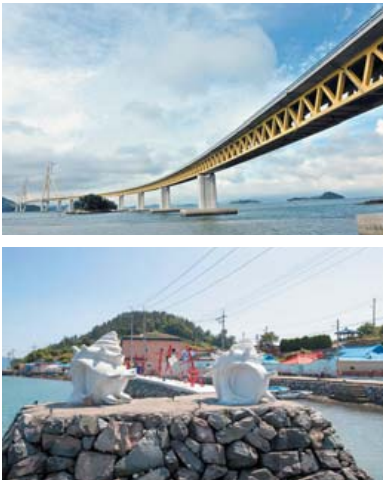


# 봄 기운 당도한 고흥서 “오감만족 여행 즐겨요”

거금대교·거금생태숲 코스...다도해 풍경 한 눈에  
주꾸미·활어회·매생이 호떡 등 먹거리 즐거움 ‘솔솔’



거금대교(위)와 연흥도 전경.

고흥군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거금대교를 지나 봄 기운이 만연한 거금도에서 입과 눈이 모두 즐거운 여행을 추천한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거금대교는 1층은 보행자·자전거도로, 2층은 차도로 구분돼 소록도와 거금도를 잇는 2.3km의 긴 교량으로 이색 걷기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달 말 비비드한 트릭아트로 새단장하는 거금대교는 재미있는 포토존으로 방문객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준비 중이다.

녹동항에 서소록도, 거금대교를 지나 만날 수 있는 거금도는 해안선 길이 54km로 소록도보다 14배 가까이 큰 섬이다. 고흥 반도의 능률한 기상을 품은 매력적인 섬으로 다도해의 풍경을 둘러볼 수 있는 아름다운 드라이브 길로 유명하다.

또한 거금도 신양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5분이면 예술의 섬 연흥도에 닿는다. 연분홍 바닷바람을 맞으며 조용한



녹동항에서 맛볼 수 있는 활어회(왼쪽)와 고흥의 푸른 전망을 가슴 가득 담을 수 있는 소원동산.

〈고흥군 제공〉

어촌마을을 둘러보다 보면 곳곳에 있는 예술작품, 포토존, 미술관, 푸른 하늘 풍경에 노곤했던 심신이 정화됨을 느낄 수 있다.

신양 선착장 인근에 있는 김일기념체육관에서는 1970년대 우리나라 국민에게 영웅과도 같았던 프로레슬러 김일 선생의 일대기와 유품을 만날 수 있다. 거금생태숲은 거금도 필수 코스로 약 1시간의 산행을 즐길 수 있어 가볍게 들

르기 좋다. 캐노피하이웨이에 오르면 12.2ha에 달하는 생태숲의 기운이 발끝에 닿아 산림욕하기 제격이다.

생태숲 아래 소원동산에서도 고흥의 푸른 전망을 가슴 가득 담을 수 있는데, 바라만 봐도 청량함을 선사한다.

거금 휴게소에서 만날 수 있는 매생이 호떡은 거금도 특산물인 매생이와 견과류가 듬뿍 들어있어 막간을 이용한 간식으로 훌륭하다.

거금도 일주를 끝내고 출출해질 무렵

녹동항에서 맛볼 수 있는 활어회, 주꾸미 사브사브, 장어탕, 장어구이 등은 맛과 영양을 겸비해 또 다른 만족감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높여준다.

고흥군 관계자는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군이 코레일과 협업해 KTX와 렌터카가 결합돼 특가로 제공되는 고흥 여행 상품이 있으나, 하룻밤을 자연 속에서 감상적으로 보내길 바란다면 거금도 여행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고흥=최복환 기자

## 담양 대나무축제 ‘명예 문화관광축제’ 선정

5월11-15일 죽녹원·종합체육관 일원서 개최

담양 대나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7일 담양군에 따르면 ‘명예 문화관광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0년 이상 진행된 전국 우수 축제 중 20개를 엄선해 축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축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정한다.

군은 ‘명예 문화관광축제’ 선정으로 ▲축제 평가·빅데이터 분석 ▲이카데미아 컨퍼런스 ▲국내·외 홍보 ▲축제 컨설팅·전문 인력 양성 등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선 신청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올해 진행되는 제2회 담양 대나무축제는 기존 군민의 날 행사와 분리해 오

는 5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대숲 처럼, 초록처럼’을 구호로 죽녹원과 종합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 기간 최초로 죽녹원을 오후 9시 까지 야간 개방하고 입장권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올해는 대나무 축제를 비롯한 광양 매화축제, 신안 새우랍축제, 함평 국화축제 등 4개 시군이 함께 사군자 축제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할 계획이며, 야간경관 조명과 세대를 아우르는 야간 체험프로그램, EDM 공연, 담양 전통주를 활용한 하이볼 체험 등 야간 관광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병노 군수는 “군의 대표 축제, 담양 대나무축제는 더욱 다채롭고 새로워진



담양 대나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담양 대나무 축제 모습. (담양군 제공)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위해 남은 기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여수시, 섬 맞춤형 드론배송 상용화 추진

2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

여수시가 2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섬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 주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지난해 이어 해당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여수시는 국비 5억원을 확보하고 오는 11월말까지 총 6억5천만원을 투입, ㈜스카이포츠드론서비스코리아·㈜무지개연구소·국제드론포럼산업협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섬 맞춤형 드론배송서비스 상용화에 나선다.

여수시 진도, 작금, 개도권역에 3개의 배송 거점과 10개의 섬 마와 캠핑장, 호텔리조트 등 지정된 15개의 배달

점을 구축해 실 주문 배송서비스를 지

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드론 이착륙장, 물품수취 시설, 드론상황실 등 배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행로 개발, 드론안전관리시스템 등 섬 드론 배송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시는 같은 공모에 선정돼 섬과 육지를 잇는 순환형 드론배송 서비스인 ‘바라가도(鳥)’를 추진, 같은 해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돼 드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공모는 미래 성장 동력인 드론산업 육성과 생활 속 드론서비스 실현을 앞당기는 좋은 기회”라며 “2028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다양한 분야의 드론서비스를 지속 발굴·지원해 ‘미래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 정광현 순천시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결

사회초년생·사회적 약자 전세피해 보호

순천시의회 정광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주택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 초년생 등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세사기·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공정성·안정성을 확보해 순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

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순천시 관내 주택임차인·전세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실태조사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교육 ▲주택 임대인·부동산 공인중개인의 책임 강화 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상담·긴급복지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함께 책 읽는 구례’ 올해의 책 선정 ‘우리 할머니는 사이보그’ 등 3권

구례군매천도서관은 7일 “함께 책 읽는 구례, 2024 올해의 책” 3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책 읽는 구례, 2024 올해의 책”은 군민의 독서 생활화를 도모하고 도서관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추진된 독서 운동이다.

구례군매천도서관은 도서선정위원회 회사를 통해 한 해 동안 군민이 함께 읽을 책을 어린이, 청소년, 소설 부문으로 나눠 1권씩 선정했다.

어린이 부문 ‘우리 할머니는 사이보그’는 남유하 작가의 작품으로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사라지는 포스트 휴먼 시대에도 변하지 않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성장 동화다.

청소년 부문 ‘너를 위한 B?’은 이금이 작가의 소설로 SNS를 통해 편집된 모습이 아닌 본연의 내 모습을 찾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묻는 작품이다.

소설 부문 ‘밤이여 오라’는 이성이 작가의 작품으로 제주 4·3 사건 등 국가폭력에 연루된 개인의 비극적 이야기와 그 폭력의 트라우마를 이겨내려는 인물들의 분투를 그려냈다.

구례군매천도서관은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선정 도서 5권씩을 구입해 1년간 ‘책 읽기 릴레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례=임종길 기자



## 장성군 ‘청소년 수당 꿈키움 바우처’ 지원

9-18세 청소년에 7-1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장성군은 7일 “민선 8기 공약인 ‘청소년 수당’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수당(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여가·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진)

지원 방식은 9-13세는 7만원, 14-18세는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꿈키움 바우처 카드’에 충전해 지급한다.

충전된 카드는 문구점, 안경점, 서점, 독서실, 교복 구입, 예체능 분야 학원 등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국어, 영어, 수학 등 입시 관련 학원에선 결제할 수 없다.

올해 신규 지원 대상인 2015년 출생 아동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즉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 청소년은 지난달 1일에

포인트가 자동 충전됐다.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20일까지며 기간이 지나면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카드 잔액, 사용 내역, 이용 가능한 가맹점 정보는 바우처 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에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검색하거나, 카드 뒷면 QR 코드를 휴대 폰 카메라로 비추면 된다.

김한중 군수는 “민선 8기 공약인 ‘청소년 수당’이 꿈나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소년 복지 확대를 장성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워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 첫선을 보인 ‘청소년 수당(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총 2천847명의 청소년에게 293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장성=김태기 기자

## “옛 시골장터 향수 선물”...장흥 토요일시장 ‘어머니 텃밭’ 새출발

84명 어르신 참여...친절·원산지 교육

장흥군은 7일 “지난 5일 장흥읍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정남진장흥 토요일시장 어머니텃밭’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어머니텃밭 사업 내용과 근무수칙 전달, 친절교육과 함께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하는 원산지 교육을 실시했다.

어머니텃밭은 2006년 출범해 18년 동안 토요일시장과 함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참여 어르신들이 저마다 택호와 이름이 적힌 명찰을 착용하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산나물을 판매한다.

가격을 흥정하고 담을 얹어주는 전통시장의 인심과 따뜻한 정을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참여자는 재래시장이 없는 읍면과 장흥읍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장흥 토요일시장 어머니텃밭은 84

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9일부터 11월까지 오일장과 겹치는 날을 제외하고 매주 토요일장이 열린다.

장흥군은 지도관리반 3개조를 운영해 명찰패용, 외국산 물품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김성 군수는 “어머니텃밭이 토요일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옛 시골장터의 향수와 추억을 선물할 것”이라며 “장흥 토요일시장이 더욱 친절하고 깨끗한 모습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욱 기자